

광주 ‘일자리 한파’ 지속…실업률 4.9%

지난달 실업자 3만8천명…전년비 1만4천명 늘어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 등 노인 일자리 영향 미친 듯

새해에도 광주의 ‘일자리 한파’가 매섭다. 공공 얼어붙었던 지난해 ‘일자리 쇼크’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정부가 무색할 정도다. 특히 지난해 세금을 투입해 늘렸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종료로 고용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최약’ 수준의 일자리 지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졸업 시즌이 겹치는 2월에는 고용위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용률, 2017년 이후 최저치=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내놓은 ‘2019년 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고용률은 58.0%로, 지난 2017년 2월(58.0%) 이후 가장 낮았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취업자가 줄었다는 의미다.

지난달 광주지역 취업자는 73만3000명. 전년도 같은 기간(73만7000명)보다 4000명 줄었는데, 지난 2017년 2월(73만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광주시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재정 투입을 통해 만들어낸 단기 일자리가 3만5184개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성적표가 참담하다. 재정을 통한 단기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는 게 경제계 분석이다.

여기에 서민 일자리도 급감하면서 수치를 악화시켰다. 당장, 경기 침체를 버텨내지 못하고 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많아졌다. 지난달 광주 자영업자 수는 14만4000명으로 1년 전(15만명)보다 5000명 적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12년 5월(14만1000명) 이래 가장 적다.

도소매·음식 숙박업 취업자도 비슷하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12.0%(2만1000명)나 줄었다. 1월 기준으로는 통계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래 가장 낮다. 경기 침체를 버텨내지 못하고 줄폐업하면서 서민업종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남지역도 자영업자 수는 28만7000명으로 1년전(29만2000명)보다 5000명 감소했고 도소매 숙박음식점 종사자도 17만7000명으로 1년 전(19만명)보다 7.2%(1만4000명) 줄었다.

◇실업률도 역대 최고 수준=지난달 광주지역 실업자 수는 3만8000명으로, 1년

전(2만3000명)보다 무려 1만4000명이나 늘었다.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실업률도 4.9%로 치솟았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04년 1월(4.9%)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광주 실업률도 3.8%. 지난 2009년(3.8%)이후 9년 만에 최대치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일자리 쇼크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제계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까지 14만명을 채용했다. 올해 채용 계획은 18만명으로 지난해(4만명)의 4배가 넘는다.

통상 고용동향 조사기간에 공무원 시험이나 재정 일자리 사업 등 대규모 채용 이벤트가 있으면 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면

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상황을 감안, 3월에 시행하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정에서 일하지 않고 쉬던 노인이나 학생 등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나머지가 대거 실업자로 분류되면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비임금 근로자가 1년 전보다 7.2%(1만3000명) 줄어든데다, 영세 자영업자 등 민간 일자리도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전남지역의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기존 농림어업 종사자들도 아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실업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북 해금강서 해맞이 행사

13일 오전 해금강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자들이 해맞이 행사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독립만세운동 재현·기억의 공간 조성 등 136억 투입

전남도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 만세운동 재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호국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자랑스러운 전남’을 주제로 지역 출신 항일운동가·유적지 등을 재조명하고 의향 전남을 전국에 알리는 기념사업 60개를 마련했다. 첫 행사로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식을 개최해 애국선열을 기억하고 추모한다.

3월 1일 전남도청에 독립유공자 및 후손, 광복회 회원, 주요 기관장·단체장 등을 초청

해 3·1절 기념식을 연다. 3월 1일 도청 출정식을 계기로 시작하는 햇불 릴레이는 42일 간 22개 시군을 돌며 만세운동을 재현한다. 릴레이를 마친 햇불은 4·11 건국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함평의 상해임시정부 복원 청사에 안치된다. 전남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기억의 공간도 조성한다.

이 공간은 애국선열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체험과 교육 공간으로 활용된다. 지역 출신 애국지사를 기리기 위해 도청 인근에 항일독립운동기념탑도 건립한다. 목포 근대문화유산인 동양척식주식회

사를 활용해 ‘100년의 역사, 100인의 얼굴들’을 주제로 서남권 3·1운동 100주년 특별 전시도 선보인다.

순천에 낙안 3·1 독립 만세운동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나라 사랑 체험학습 벨트 메모리얼 공간사업’도 추진한다. 또 도내에 흩어져 있는 항일운동 유적지에 현충시설 표지석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당시 역사현장을 생생하게 되살려 후손에게 알리는 문화예술행사도 마련했다. 구한말 호남 의병 활약상을 그린 ‘호남 의병 혈전기’를 제작해 3월부터 12월까지 22개 시군에서 순회공연한다.

3·1운동, 독립군 전투 등 항일운동 사진

전을 문화예술회관 등 사·군 다중집합장소에서 열고, 전남 항일운동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교육공모전·사생대회 등도 개최한다.

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부 ‘독립의 햇불’ 전국 릴레이 행사 중 전남 목포~순천 구간에서 햇불을 봉송한다. 햇불 환영퍼포먼스와 이색봉송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함께 만드는 100년 기념사업 인증, 100년 서포터즈 운영 등 정부의 다른 기념사업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임채영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국의 병의 62%가 전남에서 일어났을 만큼 우리 지역은 의로운 고장”이라며 “전남의 항일 역사를 되돌아보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제2 광주형 일자리’ 경쟁 가세

철강·석유화학 등 검토 착수

전남도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벤치마킹하면서도 전남 산업구조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남형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한국경제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환영받고 있다”면서 “전남도에서도 정부 일자리 정책에 맞춰 전남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제조업의 토대 위에서 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지역 특성에 맞춰 적용한 ‘전남형 일자리’ 발굴하라는 지시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 임금에 낮추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를 지원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자 “올해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는

산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전남형 일자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동부권의 철강·석유화학, 서남권의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과 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등을 토대로 아이템 발굴에서 나서고 있다.

산입기반이 취약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남이 고용효과가 큰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발굴해 지역발전과 함께 인구 200만 도민시대를 부활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간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가 제2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중심으로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년간 지역경제가 어려온 전주시출도시 구미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북도는 대기업과 연계해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반도체 등을 통해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부산, 인천, 충청 등도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찾기 위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주민수용성조사 합의

거버넌스 3차 회의서…투표 방식 등 추후 논의

나주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놓고 주민 수용성 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조사 방법을 주민투표(직접 투표 또는 여론조사)로 할지, 공론조사방식으로 할지 결론짓지 못했다. 또 투표 참여 범위와 실행주체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13일 전남도·한국지역난방공사·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이 참여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 따르면 이날 나주 지역난방공사·광주·전남지사서 거버넌스 3차 회의를 열고 발전소 가동에 대한 주민 수용성 조사를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수용성 조사 범위는 반경 5km와 나주시 전역이 검토됐다.

앞서 2차 회의에서 수용성 조사 선택 대상으로 ▲SRF발전소 가동(광주·전남 SRF 사용) ▲SRF발전소 6개월 가동(전남 SRF 전량+부족분 광주) ▲SRF발전소 2개월 가동(전남 SRF 전량) ▲SRF발전소 폐쇄·LNG 가동 등이 4가지 안이 논의돼 이를 토대로 수용성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전소 연료를 SRF에서 LNG로 바꿀 경우 지역난방공사가 산정한 손실비용 등에 대해 범대위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지역난방공사가 내놓은 비용 산정안을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특수목적 법인 설립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7기)	광주교육대학교(197기)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1, 2단계 연속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속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별)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 062) 520-4243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NPL 과 실전경매(기초)

11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8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의 볼.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 소유 공장 만들어 드림!

2019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27일(수)
- 교육기간 : 2019년 3월 8일(금) ~ 6월 14일(금)
매주 금요일 주간 3시/야간 7시
- 수 강 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혈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식~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한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NAVER 유한바이오 백세생활건강 <검역>

010-3598-7080